

세상의 찌꺼기 같은 우리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던다 (고전 4:13).

:

위 구절은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위 내용이 오늘날 소위 복음 사역자들인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이유는, 바울이 이 내용을 쓸 당시 정확한 의미를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너무 많은 세상의 애착들이 남아 있어서 우리는 만물의 찌꺼기가 되기를 스스로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거둬나서 거룩하게 될 때 누구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 따로 구별된 자”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게 됩니다.

베드로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벧전 4:12}고 말합니다. 우리가 겪는 여러 고난을 이상하게 여긴다면, 이는 우리 마음이 겁으로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 시험을 피할 수만 있다면 약속바르게 빠져나갈 것입니다. “나는 복음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싶지는 않아. 사람들에게 굶히고 싶지 않아.” 물론 당신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구원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얼마든지 복음을 위해 당신을 따로 구별하시는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당신은 “복음이 증거된다면 나는 이 땅에서 찌꺼기같이 대우 받아도 상관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하나님의 복음의 실체를 위해 순교할 각오를 한 자들입니다. 단지 도덕적인 사람이라면 부끄러움이나 부도덕을 경험하거나 배신을 당하게 될 때 그 악영향이 그의 ‘선함’에 너무나 큰 충격을 주기에 그의 마음은 절망으로 닫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실체’의 놀라움이란, 아무리 나쁘고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자신을 구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기 위해” 구별되었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찌꺼기 같은 우리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고도다 (고전 4:13)

1. 구별된 자의 몫이 있다

챔버스는 오늘 묵상도 사도바울의 자기 고백이 있는 성경 본문을 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았던 자신의 삶을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과도 연관되는 부분인데 소명자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을 향한 애착은 ‘만물의 찌꺼기가 되는 것’을 거절하게 만들지만, 구별된 당신은 ‘복음이 증거 된다면 이 땅에서 찌꺼기같이 대우받아도 상관없다’고 말해야 합니다.**

오늘 묵상 글에서 아주 인상적인 것은 ‘구별된 자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거룩하게 될 때 누구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 따로 구별된 자’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챔버스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왜 우리들은 이 말씀을 과장된 표현으로 치부하거나 혹은 우리에게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들에게 너무 많은 세상에 대한 애착들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꺼이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는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긴다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난을 피해 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복음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마음이 추호도 없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살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은 받지만 ‘구별된 자의 몫’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이끄셔서 ‘억지로 된 순종’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사도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했습니다. ‘남은 고난’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제자의 삶을 살 때,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2. 찌꺼기같이 대우 받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만물의 찌꺼기같이 됨을 마땅히 여기게 되었을까요? 복음이 전파된다면 이 땅에서 어떤 대우를 받아도 상관없다는 마음이야말로 참된 ‘종’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러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신앙’에 머무르려는 사람들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도덕적 신앙에 머무르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선함’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에 대하여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의 평판이 자신들의 행동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기꺼이 ‘찌꺼기’가 되려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찌꺼기같이 대우 받는 것을 기꺼이 감수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자신을 구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기 위해’ 구별되었다고 말합니다.”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선택의 몫은 우리들에게도 남겨져 있습니다. 가까스로 구원받은 부끄러운 성도가 되든지, 하나님 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어 기꺼이 세상의 찌꺼기 같은 존재가 되든지 그 선택은 우리들에게 달린 것입니다. 이 상태가 되는 것이 ‘복음을 위해 구별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김병삼 목사의 한줄 노트

- ❶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은 결코 낭만적인 일이 아닙니다.
- ❷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도 기꺼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묵상 질문 우리에게 주어진 몫의 고난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묵상 레시피 ■ 베드로전서 4:12-19 + 고전 4:13

본문은 우리가 불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권합니까? (12-13절)

불시험이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2절)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복입니까 (13, 14, 16절)

그것이 왜 우리에게 복입니까? (13-14절)

그러나 우리가 피해야 할 고난은 무엇입니까? (15절)

고난이 올 때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9절)

고난 중에도 우리가 계속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9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13절) (헬)카레테 아길리오메노이

기쁨의 극치, 기뻐 뛰며 춤을 추는 모습. 몹시 기뻐 날뛰는 것.

너희 위에 ‘계심’이라 (헬)아나하우에타이

전치사 (헬)아나(-위에, -가운데)와 동사 (헬)파우오(쉬다)의 합성어.

‘-위에서 머물러 있다’라는 뜻과 동시에 ‘회복시키다’, ‘원기를 돋우다’란 뜻으로도 읽힌다(마 11:28, 눅12:19, 계14:13). 즉,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머리 위에 머물러 원기를 회복시킨다는 의미.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15절) (헬)알로트리에피스코포스

‘타인’과 ‘감독자’를 뜻하는 헬라어의 합성. ‘타인에 대하여 감독자의 위치에 서는 자’라는 의미. 참견하는 것을 넘어 남의 것을 착복, 횡령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끼치는 자.

의탁할지어다(19절) (헬)파라티데스도산

-의 곁에 두다, 건제주다, 맡기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길 때 사용된 동사(눅23:46). 현재명령형으로 '계속, 항상' 맡겨두라는 의미.

짧은 기도

이 몸을님께 바치리이다.

세포 하나 남기지 말고 털끝하나 남기지 말고

내 것이라곤 하나 없이 나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다님께 바치리이다.

님께서 이 잘난 것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게는 둘 수가 없어서 두어 둘 터무니가 없어서

님께 바쳐 처분해 주시기를 비오니 나를 온전히 받으소서.

내가님께 드린 다음에야

어떻게 하시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쓰실 테면 쓰시고 버리실 테면 버리시고

님 옆에 두시거나 그 걱정은 할 것 없이 그저 온전히 바치기만 원합니다.

이젠 다시 나란 생각 없습니다.

내 것이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나란 것이 있을 때에는 나도 죽고 세상도 죽었습니다.

내가 정욕을 품어서 세상도 나 보고 정욕을 일으켰습니다.

나 없고 님의 것만 드러내면 누가 보나님께 영광 아니 돌리리이까?

함석헌_님께 바칩니다(1901-1989, 사상가) 「사권의 기도」 519-520